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¹⁾ 教育에서 漢字·漢字語 教育의 현황과 문제점

— 하와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朴世珍*

<目次>

I. 序論	2. 미국 대학에서 漢字·漢字語 教育의 現況
II. 미국 대학에서 韓國語 教育과 漢字·漢字語 教育의 現況	3. 하와이대학교의 漢字·漢字語 教育의 실제와 문제점
1. 미국 대학에서 韓國語 教育의 現況	III. 結論

<국문 초록>

본고는 외국인을 위한 漢字·漢字語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필자는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대학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하와이대학교에서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인을 위한 바람직한 漢字·漢字語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한국학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1) 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의 뜻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학업이나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 경민대학교 강의전담교수 / psjjj@hanmail.net

보이고 있다. 특히 漢字·漢字語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일부로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어휘를 확장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미국 대학에서의 한자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하와이 대학교에서의 漢字·漢字語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을 教材, 目標와 內容,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주제어】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하와이대학교, 한자교재, 한국어교육, 미국대학

I. 序論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요즘 전 세계적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한국음식, 한국패션, 한국상품 등 한국 문화에 심취함에 따라 한국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이 최근 약 52개국 120곳에 설치되고 수강생이 25% 증가하였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한국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²⁾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UC Berkely 대학은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70주년³⁾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 역사는 1943년 최봉운 교수가 한국어 과목을 최초로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60년대 몇 개의 대학을 선두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 2011년에는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이 약 140여개에 이른다.⁴⁾ 이

2)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3일 보도.

3) UC버클리 한국학센터(<http://ieas.berkeley.edu/cks/>)

4) 김정년, 「미국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2002.(<www.iic.edu/Main/aboutUS/publication/Korean>).

같이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배경에는 한류의 영향이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교양 강좌로서의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한국학과나 한국어(문)학과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한국역사, 한국무용 등- 과목들은 고급의 한국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학 교과목의 개설은 한국어 강좌의 활성화에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면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나아가 깊이 있게 한국어를 알고 싶거나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다면 어려운 고급 어휘를 배워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외국 대학 중 한국어(문)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한국어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한자·한자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그들 역시 한국어 어휘와 한자교육에 대한 관련성을 인지하고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자 과목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막론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한자교육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지역, 모국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의 한자교육은 외국이라는 지역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새롭게 정의 되어야 함은 물론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외국대

이 논문에서는 1942년 최봉윤 교수가 초빙되어 동양어 학과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것을 계기로 더불어 1943년 한국어 과목을 설치하여 무보수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 Ho-min Sohn, <해외대학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현안>, 《Topic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press, 2013, p.206, “현재 미국 내 한국어(문)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Brigham Young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UCLA, The Ohio State University, SUNY Binghamton University 5곳이다.”

학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하와이대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했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서 바람직한 한자·한자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미국 대학에서 韓國語 敎育과 漢字·漢字語 敎育의 現況

1. 미국대학에서 韓國語 敎育의 現況

미국 내에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몇 개의 대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가 개설한 한국학 관련 강좌는 총 53개이며 한국어 과정만 2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 학교에서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학 관련 수강생의 65~70%는 한국계 학생들이다. 교수진은 총 16명으로 12명의 교수와 4명의 강사가 있다.⁶⁾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East Asian Languages Civilizations학과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에서는 한국어를 4단계로 나누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Korean heritage speaker⁷⁾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박사과정[Ph.D]을 설치하여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6) UCLA 한국학연구소(<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programs/course>).

7) Váldes. Guadalupe, Joshua A Fishman, Rebecca Chavez & William Pérez, 《Developing Minority Language Resources: The Case of Spanish in California》,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6.에 따르면 ‘heritage speaker’란 캐나다와 미국에서 쓰이는 용어로 Váldes의 정의에 따르면 영어 외의 언어가 사용되는(소수민)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해당 heritage language[소수 언어]를 말할 수 있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느 정도 영어와 소수 언어의 이중 언어 사용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와이대학교는 현재 미국 내 학교 중에서 한국학 관련분야에 가장 많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학과 관련된 교수는 정교수 13명, 부교수 5명, 조교수 1명이고 그 중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손호민 교수를 포함하여 정교수 3명, 조교수 3명, full time 강사 1명, 그 밖에 모든 박사 과정의 학생이 학부 수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문)학과에서는 한국어에 관한 33개의 강좌⁸⁾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초, 중급, 3단계,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자·한자어 과목에 해당하는 KOR-307, KOR-308은 3단계로 중급 이상의 한국어를 마친 학생들이 주로 수강을 하고 있다. 또한 어학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 ‘한국 전통 문학’, ‘한국 번역 문학’ 등 한국 문학에 관한 과목도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두고 있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내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한다. 최근 하와이대학교 석·박사 과정의 입학 정원⁹⁾이 Japanese학과와 Chinese학과를 능가하여 개설 이래로 동아시아 어문학과[EALL]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어(문)학과와 별개로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를 설치하여 한국학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전반적인 한국학 연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학교 이외에도 Columbia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at Albany, Georgetown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등 많은 대

8) 하와이대학교에서는 East Asian Language & Literature 안에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어 있다.(<http://www.catalog.hawaii.edu/courses/departments/kor.htm>)

9) Ho-min Sohn, <Evolution of the Korean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opic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press, 2013, p.777.

<2012 East Asian Language and literature 대학원생 입학 현황>

Degree	Japanese		Chinese		Korean		Total
	Lang/Ling	Literature	Lang/Ling	Literature	Lang/Ling	Literature	
MA	13	7	2	2	18	1	43
PhD	14	8	6	2	25	4	59
Total	27	15	8	4	43	5	102

학에서 한국어를 활발하게 가르치고 있다.

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한자 한자어를 익혀 한국어의 어휘를 확장하고 원활한 한국어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¹⁰⁾ 외국의 대학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자·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또 다시 역설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솔직히 한국의 대학 기관 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한자·한자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것¹¹⁾에 비한다면 하와이대학교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완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하와이대학교에서는 미국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한국어에 관한 많은 교재를 출간하여 미국의 대학의 교재로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한자·한자어 교재인 《Korean reader for Chinese characters》¹²⁾도 2002년에 하와이대학교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한자·한자어 교재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책을 포함하여 이 대학에서 발간된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여전히 미국의 전 지역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어학과의 전통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하와이대학교는 아시아와 미 대륙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리학적으로도 아시아와 근접해 있고 아시아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 때문에 아시아

10) 이영희는 한국어 한자교육 목표는 “한자어의 의미 분석과 조어 원리를 통하여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나아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전공 관련 한자어를 익히고, 대학 수학과 연구를 위하여 국한문 혼용 텍스트를 읽어 낼 수 있는 어휘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정의하였다.(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11)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영희는 위의 논문에서 한자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실시하는 곳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선문대 연세대 등이다.

12) 조준학·손연자·양혜순 공저,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계의 언어학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 내 대학교 중 Asian Linguistics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한국어(문)학과 역시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문)학과¹³⁾의 총 메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문)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계 이민자¹⁴⁾의 후손들이 많다. 그들은 가정환경과 부모들의 언어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은 그다지 낮은 수업은 아니다. 실제로 하와이대학교 한자수업-KOR-307-에 한국계 학생들은 60%이상이었고 나머지는 일본계, 미국계로 구성원을 이루었다.¹⁵⁾ 한자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역시 한국어 200단위 이상을 이수한 중급 이상의 단계로 3학년부터 대학원생들까지 전공도 다양하였다. 한국어의 수준은 자유자재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수업에서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미국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미국 대학에서 漢字·漢字語 教育의 現況

미국 대학에서는 2000년 초반 하더라도 초급 한국어 강좌만을 개설했던 곳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다. 특히 중·고급 한국어과정의 일부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대

13) 최초의 한국학을 개설한 학교는 1962년 컬럼비아대학교로 현재 한국학 전공 교수진은 언어, 역사, 문학, 정치, 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수강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학으로 석사, 박사과정도 운영되고 있다.(www.columbia.edu/cu/ealac/korean)

14) 하와이 이민은 110년 전인 1903년에 시작되었다.

15) 1강좌 15명 정원 기준을 원칙으로 2012-1학기(8월) 수강생 19명 중 한국계 13명, 일본계 4명, 미국인 2명, 2013-2학기(1월) 수강생 14명 중 한국계 9명, 일본계 2명, 미국인 3명이 수강하였다. 듣는 학생들의 전공은 Korean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영, 미술, 자연과학, 사회학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도 수강하고 있다.

학16)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 현재 한자 관련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의 현황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국 대학 내 한자 관련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

대학명	강좌명	특징
Columbia University	Advanced Korean in Mixed Script -한자 혼용의 고급한국어	한자 혼용으로 된 고급 한국어. 주로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고급 한국어 수준이며 석사·박사 필수과목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ALC-418: Korean Writing in Mixed Script -한자 혼용의 한국어 쓰기	한글·한자 혼용 쓰기
Brigham Young University	KOREA 301: Third-Year Korean 1 -한국어 어휘, 문법, 담화, 발음, 한자, 문화 KOREA 302: Third-Year Korean 2 -한국어 어휘, 문법, 담화, 발음, 한자, 문화, 작문 KOREA 321: Selected Readings of Modern Korean -한국 현대문, 문학작품, 및 한자 혼용문 읽기 KOREA 401: Fourth-Year Korean 1 -읽기, 담화, 쓰기, 한자 KOREA 402: Fourth-Year Korean 2 -읽기, 담화, 쓰기, 한자 KOREA 441: Classical Korean (Hanmun) -죽보, 조선왕조실록 등 고전 한문 읽기	모든 400 단위의 고급한국어 과목에서 한자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UCLA	103A-103B-103C: Readings in Sino-Korean Characters -한자어 읽기 C149: Readings of Sino-Korean and Korean Sources of Modern Korea -한자어 읽기와 현대 한국어 원론 C249: Readings of Sino-Korean and Korean Sources of Modern Korea -한자어 읽기와 현대 한국어 원론	주로 3~4학년이 한자과목을 수강함. 그 이 외에 100A·B·C: Advanced Modern Korean에서도 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음.

16) 이영희, 앞의 논문, 2012, pp.272-273.에서는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한자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3곳의 학교에서 한자 강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학명	강좌명	특징
University of Hawaii	KOR 307: Readings in Chinese Characters I -한자·한자어 읽기1 KOR 308: Readings in Chinese Characters II -한자·한자어 읽기2	중급,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각 250개의 기초 한자를 가르치고 있음.
Binghamton University (SUNY)	KOR 421: CHINESE CHARACTERS (HANJA) I -한자1 KOR 422: CHINESE CHARACTERS (HANJA) II -한자2	중급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자의 형성원리와 한국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는 단순히 한자·한자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UCLA에서는 많은 과목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자·한자어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별도의 한자·한자어 강좌는 없으나 한국어 강좌에 한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고급 한국어 강좌에 한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120a-120b: Intermediate Korean -중급 한국어 130a-130b: Pre-advanced Korean -중·고급 한국어 140a-140b: Advanced Korean -고급 한국어	교과과정 설명에서 기초 과목부터 한국어 어휘력 향상에 중요한 한자를 교육한다고 밝히고 있음.
Princeton University	KOR 301: Advanced Korean I -고급 한국어1 KOR 302: Advanced Korean II -고급 한국어2	고급한국어 교육과정 설명에서 한자어 100개를 교육하고 있다고 함.
University of Chicago	30100 Advanced Korean-1 -고급 한국어1 30200 Advanced Korean-2 -고급 한국어2 30300 Advanced Korean-3 -고급 한국어3	교육과정 설명에 한자 교육이 매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함.
Georgetown University	Business Korean I -실용 한국어1 Business Korean II -실용 한국어2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에 한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A EAK 301 Advanced Korean I -고급 한국어1 A EAK 301 Advanced Korean II -고급 한국어2	교육과정 설명에는 안 나오지만 한국어강좌 Q&A에 고급한국어 강좌에서 한자를 가르친다고 언급하고 있음.
Intercultural Institute of California	K20-2 Intermediate Korean and Culture -중급 한국어 및 한국문화	중급한국어 강좌부터 한자를 가르치고 있음.

위 학교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은 현재 중·고급의 한국어 강좌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어의 수요가 늘어나고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한자·한자어 과목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아시아 어문학과에서도 현재 많은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는 311, 411 단위 과목에서 한자를 가르쳤으나 현재는 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 속에 한자·한자어 교육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에는 한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한자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전공자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문)학과에서 한자·한자어 강좌를 개설·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을 전공한 지도자 양성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하와이대학교의 漢字·漢字語 教育의 실제와 문제점

하와이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에 한자과목으로 ‘KOR307: Readings in Chinese Characters I’과 ‘KOR308: Readings in Chinese Characters II’가 각각 1, 2학기에 개설되어 있다. 이 과목은 전공 학습자들에게는 전공 선택과목이고 타 전공 학습자들에게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총 3학점

3시간으로 일주일에 두 번 나눠 실시하고 있다. 교수진은 전공자가 아닌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필자가 2012년~2013년에 하와이대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자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漢字·漢字語 教育의 敎재

하와이대학교의 수업 첫 시간, 학생들에게 “한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한자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적어도 한국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며 현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자를 國字로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영어가 라틴어에서 기인한 것처럼 한국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고¹⁷⁾ 한자어를 알면 한국어를 더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하와이대학교에는 한자·한자어 교육을 위해 편찬된 교재 《Korean reader for Chinese characters》가 있다. 이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한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와이대학교의 교재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와이대학교의 한자 과목 수업시수는 일주일에 3시간이다. 한자 교재는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학습한다. 또한 한문

17) Suk-jin Chang, 《Korean》(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4),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1996, p.19, “한자어(SK)가 순수 한국어(NK) 어휘 보다 15퍼센트 정도 많다. SK는 정치, 정부 기관, 학계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포함하여 고급 어휘인 반면, NK는 친족명, 신체명, 숫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 어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영어에서 고급 어휘가 라틴어나 불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교육용 기초 한자 1,800字 중 한자 512字를 추출하여 40課¹⁸⁾로 이루어진 본문을 통해 한자와 한자 어휘를 익히도록 만들었다. 교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제목
- ② 한 課에 12자~13자의 새로운 한자를 소개한다.
- ③ (대화, 편지, 논문, 설명문 등) 본문에 나오는 새로 나온 한자가 포함된 국한문 혼용의 문장을 통해 한자 어휘를 익힌다.
- ④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다.(영어병기)
- ⑤ Note - 한자·한자 어휘 중 발음이 불규칙한 어휘에 대하여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따른 설명을 추가하였다.
- ⑥ 본문 중에 새로 나온 한자어 익히기(영어 병기)
- ⑦ 한자어 더 찾아보기 - 배운 한자를 통해 한자 어휘 확장하기
- ⑧ 연습문제

18)

단 원	제 목
제1과	안녕하세요? (hello)
제2과	피터의 하루 (Peter's day)
제3과	민지의 친구들 (Min-ji's friends)
제4과	서울의 東西南北 (The four directions of Seoul)
제5과	教授食堂 (The faculty dining hall)
제6과	고속도로에서 (On the highway)
제7과	민우의 家族 (Min-u's family)
제8과	韓國人の 姓名 (Korean names)
제9과	누구를 닮았을까요? (Whom do I resemble?)
제10과	한글과 漢字 (Hangul and hanja)
제11과	韓國의 春夏秋冬 (Spring, summer, autumn, winter)
제12과	제주도에서 (On Jeju Island)
제13과	電氣불과 火氣불 (Electric and gaslight)
제14과	중매 좀 서 주세요 (Please be my go-between)
제15과	放送局에 다녀요 (He works at a broadcasting station)
제16과	韓國의 오페라 판소리 (Pansori, Korean traditional opera)
제17과	校門에 붙인 엿 (Yot-candy on the school gate)
제18과	頂上會談 (The summit meeting)
제19과	취미가 뭐예요? (What is your hobby?)
제20과	尊敬하는 祖父님 (My esteemed grandfather)

- ⑨ 복습 및 활용 - 다섯 과가 끝날 때 마다 이전에 배운 다섯과의 한자 어휘를 총 망라하여 복습한다.

위의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교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한자 수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본 교재는 한글 영어의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대학 교재라는 특성 상 영어로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전공자의 감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한자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여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¹⁹⁾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교재에 나온 512자의 신출한자는 교육용 한자 선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이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한자나 한자 어휘를 선별하였다. 따라서 한자의 난이도를 변별하지 못하고 단계별 수업형태가 아닌 본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자를 선정하다 보니 어려운 한자가 갑

제21과	花郎道 (Thw way of the hwarang)
제22과	재미있는 漢字의 原理 (Some interesting principle of Chinese characters)
제23과	始作이 半 (Well begun is half done)
제24과	세계는 서울로 (From the world to Seoul)
제25과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나요? (Why do you study?)
제26과	이웃집 쌍둥이 姊妹 (The twin sisters next door)
제27과	正直한 青年 (An honest boy)
제28과	어떤 性格일까요? (What can my personality be?)
제29과	金先生의 出張 (Mr. Kim business trip)
제30과	國家 이미지 (The national image)
제31과	不買運動 (A boycott against buying)
제32과	반상회 (Neighborhood meetings)
제33과	開校紀念日과 同窓의 날 (Founding day and Alumni day)
제34과	課外工夫 (Private tutoring)
제35과	落葉을 밟으며 (Stepping on fallen leaves)
제36과	幸福 (Happiness)
제37과	버스 料金 引上 (Increase in bus fare)
제38과	三綱五倫 (The three principles and fine moral rules)
제39과	太極旗와 愛國歌 (The flag and the national anthem)
제40과	韓國의 建國神話 (The Korean foundation myth)

19) 이 교재는 12년 전에 한자교육 전공자가 아닌 학자들로 구성되어 편찬하였다.

자기 제시될 때가 있다. 예컨대 12과에서 山, 川 등의 기본적인 상형자들과 함께 緣과 植과 같이 획순이 많은 한자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한자에 대한 획순이 제시되지 않아 한자 쓰기에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므로 보조 자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둘째, 교재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1학기 때 배우는 한자수와 2학기 때 배우는 한자수가 동일하고 한자어의 학습에 있어 어휘만 나열하였을 뿐 한자어의 구조·대등, 병렬, 수식, 유의어, 반대어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집필된 것이라 본문 중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제들이 많고 현실에서 벗어난 진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 예컨대 14과에서는 仲媒라는 한국 문화와 장가가기 힘든 농촌 총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결혼 방식 중에 하나이므로 전통적인 한국 문화로 소개할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 또한 요즘 시대가 변화하여 농촌 총각들의 결혼 형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문화와 시대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한자어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루한 단어들이 많다. 24과에서는 교재를 편찬할 당시에 일어난 사건과 분위기, 관심 대상이 오늘의 韓國象과는 많이 달라 사뭇 혼동과 이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교재의 수정·보완이 반드시 요구된다.

셋째, 한자 어휘를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한자 익히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명 기본적인 한자는 외우고 쓸 수 있어야겠지만 획순이 어렵고 빈도수가 적은 어려운 한자나 한자 어휘는 외국어를 익히는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한자를 쓰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읽기에 중점을 두어 한자 어휘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의 목표에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예) 外相의 의미는?

예) 열망(), 애원(), 염원()

예) 神檀樹: divine tree in the birth myth of Korea, sacred grove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많고, 한국인도 쓰기 어려운 한자어를 쓰도록 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한자교재가 1권으로 되어 있어 한자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 언어 습득 환경, 그리고 언어 습득의 목적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을 기초 학습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1課의 학습 분량이 너무 많다. 1년 동안 40課 중 20課 정도 밖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적당한 학습량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한 課를 마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학습량을 수준별로 나누어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Korean reader for Chinese characters》는 큰 수정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외국대학의 출판 교재는 개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한자 교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국내의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재의 실태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재로는 1968년 명도원의 『한자 Chinese characters 1·2』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교재로서 출간은 다소 빠른 편이었지만 그 후 교재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²⁰⁾ 최근에 나온 교재는 이전과 다르게 주제나 구성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한자 어휘 중심의 교육으로 바

20) 이영희가 조사한 2007년까지 나온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교재는 16권이다. 이는 해외에서 출판된 교재를 포함한다.(이영희, 앞의 논문, 2007. 참조.)

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에 국내에서 편찬된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3> 국내의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재

저자	서명	특징	표기	수록한자
이영희 (2004)	외국인을 위한 재미있는 漢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은 주제별로 총50과로 날권으로 되어 있음 ·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이 어려움 · 한자의 자원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한국어보다 영어의 설명이 더 많음 · 한자어휘보다 한자교육 중심으로 구성됨 · 약간의 漢字成語를 수록함 · 확장 한자어휘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음 	영어 병기	신출한자 544字
김지형 배규범 (2005)	漢字로 배우는 한국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課에 10-40字를 한자를 제시하고 총 13과로 날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자권 국가들과 한자어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국제음성부호를 표기하고 있음 · 각 한자마다 2-3개의 한자 어휘를 제시하여 한자 어휘 중심으로 구성됨 · 한자 어휘의 난이도를 등급으로 표시됨 · 단원 끝마다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글이 있음 · 활용이나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음 	영어 병기	표제한자 191字 심화한자 137字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漢字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課에 8字씩의 漢字를 제시함 · 1권에 총15과로 2권으로 나누어, 1권에는 한자 중심으로, 2권에는 한자 어휘의 읽기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음 · 매 課에 漢字成語 수록함 	한글과 한자	신출한자 240字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 (2007)	Useful Chinese Characters for learners of Kor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課에 10-12字의 한자를 제시함 · 1권으로 되어있지만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수준별 차이를 고려함 · 초급은 한자 중심이고 중급은 한자 어휘 중심으로 구성됨 	영어 병기	386字

저자	서명	특징	표기	수록한자
배규범 (2007)	요모조모 한국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한자 제시가 없음 · 이야기 글에서 한자 어휘의 독음 쓰기로만 구성됨 · 한자 어휘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됨 · 한자 어휘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제시되어 있음 	영어 일어 병기	약 1100개의 한자 어휘 수록
박영미 김영수 김광미 (2012)	외국인을 위한 퍼즐과 실전으로 배우는 漢字成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과로 한 課에 6~7개의 漢字成語를 제시함 · 중·고급 수준의 학습 교재 · 모든 문제가 퍼즐형식으로 구성되어 단조로움 · 연습문제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성됨 	한글 한자	총 96개의 漢字成語 수록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 교재가 날권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에 중점을 두는 교재도 연세대와 서울대의 교재는 두 단계로 나누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내용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들에게 대한 차이를 고려한 교재도 있고, 교재의 구성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출한자 수에 있어서도 각 교재 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교재를 살펴보면, 분명 한자나 한자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솔직히 한자 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쓴 교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몇 가지 한자 교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사용되거나 조어력이 높은 한자를 선별하여 한국어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한자를 익힌 이후에 한자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한자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에게 한자가 또 다른 문자로서의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흥미롭게 수준별로 한자나 한자 어휘를 선정하는 것은 한자 전공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때 한자 지식이 전혀 없는 초급 학습자들은 한자를 읽고, 획순에 맞게 쓰고, 의미를 익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 여기서 한자를 쓰기보다 읽

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자를 학습한 후에는 그 배운 한자를 활용한 한자어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단순히 본문에 나오는 한자에 대응하여 한 개의 한자 어휘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mind map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이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자극시킨다. 수업시간에 낱글자의 한자를 익힌 뒤 그 한자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면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지적 호기심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한자의 조합력과 학생들의 머리에서 그려지는 활용도가 높은 한자어를 추출하는 것은, 한자·한자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과 한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자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자교재를 3~4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 한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와 한국학의 교양과목으로 한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교재는 난이도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한 한자교재를 단계별로 교양한자어와 전공한자어로 구분하여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양한자어 과목에는 기초한자와 기초한자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교양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 한자어 과목에는 한자 교육보다는 한자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의미가 있는 한자어, 동음이의어, 고사성어 등과 같이 어휘를 확장 할 수 있도록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한자권과 비한자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²¹⁾ 한자권의 학습자들은 언어적 배경과 문화적인 공통성 때문에 한자나 한자어에 친숙함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므로 비한자권의 학습자들과는 학습의 방법과 학습이해도, 학습시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21) 이영희, 앞의 논문, 2007.

미국에서의 한자교육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 비한자권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자나 Korean heritage learners 등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한자권 학습자들²²⁾의 수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학습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자교육 역시 언어적 배경과 언어 습득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에 알맞게 한자 교재를 수준별로 나누어 집필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실제로 한자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은 어휘에 대해 상당한 배경지식이 있었고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한국어를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은 분명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과는 다르다. 우선 주변 환경의 언어 모형이 한국어가 아니고 주변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주로 수업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영어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점이 한자 교육을 전공하는 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漢字·漢字語 教育의 목표와 내용

외국에서 한자·한자어 과목의 개설 목적은 한자·한자어를 익혀 한국어의 어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은 낱글자의 漢字를 익히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한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자 어휘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22) 송병렬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어휘 교육의 문제」(『한문 교육연구』 제3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에서 한자 어휘는 한자권의 학습자에게는 선행 학습이 되어 있으면서 그 선행 학습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선행 학습이 전혀 없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한자 어휘를 학습 할 때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한자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어 교육용 한자를 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빈도에 따른 한자 어휘도 정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가 선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한자 어휘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위한 한자·한자어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의 위상을 확립하고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와이대학교의 한자 수업은 교양 선택과목으로 일주일에 3시간이고,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2학기에 걸쳐 512字를 익히고 각 한자와 그에 상응하는 한자 어휘를 읽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한자 어휘도 선정된 한자에 맞추다 보니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자와 한자어(휘)만을 나열하였을 뿐 한자 어휘의 생성원리나 구조, 상관관계에 있는 한자어, 고사성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고급어휘나 고사성어 같이 典故나 敎訓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 어휘들은 한자의 자원을 떠나서 그 나라의 격언이나 속담하고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자·한자어 교육을 하는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한자 어휘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되었을 때 한자교육²³⁾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외국 문자에 대한 반감도 줄어든다. 실제로 하와이대학교에서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생길 때, 즉 한국어 실력이 中級 이상이 될 때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능력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한국어(문)학과의 staff

23) 한자교육의 시기가 한국어 중급 이상의 능력을 갖춘 때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의 여러 논문(오수진,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영희, 앞의 논문, 2007.)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로부터 placement test[수준별 배치 시험]를 받는다. 몇 가지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검정을 치른 후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듣기 능력과 교재를 해독할 수 있는 읽기 능력만 갖춰진다면 수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중급 이상의 능력은 학습자의 배경에 따라 수준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대상에 따라 수준별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²⁴⁾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단지 한국어 교육의 몇 학자들에 의해 선언적인 연구에 그쳤을 뿐 실제로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도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이 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에

24) 최주열, 「한자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교육』 제5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4.; 김현정,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한자어 선정과 교수학습 방안」,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유홍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터키 예르지예스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설혜경,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 연구」, 배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훈, 「외국인을 위한 한국한자 교육 연구」, 『국어문학』 제47집, 국어문학회, 2009.; 김지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자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전공 및 전공 예비 과정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1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김대회,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발전 방향」, 『한문교육연구』 제3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송병렬, 앞의 논문, 2013.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한자·한자어 연구를 하였다.

- ①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용 한자 및 한자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 ②한자·한자어(휘) 교수법에 관한 연구
- ③한자·한자어(휘) 교재에 구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 ④한자·한자어(휘)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 ⑤한자·한자어(휘) 교육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등

는 국내의 국어 교육의 일부로써 한자 교육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있다.

기존 연구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자·한자어 교육을 의미한다.(이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교육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도 포함한다.)

<목표>

-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자어(휘)를 익혀 한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기른다.
-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를 기본으로 익힌다.
- 기초한자에 관련된 한자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조어력을 통한 확장된 한자 어휘를 찾아 그 의미를 유추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 한자어(휘)의 구조와 생성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 고사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국의 격언이나 속담과 비교하며 익히고 활용한다.

<대상>

- 국내외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자

위에 제시한 한자 교육의 정의와 목표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수준이라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면, 정의와 목표 설정은 당위적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정의와 목표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자교육의 전문가들이 수준별 교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수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한자·한자

어 교육을 하는 학습자를 수준별로 분류하여 수준에 맞는 교재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학습자의 수준은 단지 한자·한자어를 아는 지식의 정도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 언어 습득 환경 그리고 언어 습득의 목적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지금껏 국내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학습자를 한자권과 비한자권의 이분적인 체계로만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는 논의만 있었을 뿐 국외에서 한자·한자어교육을 하는 학습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외국에서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외의 한자·한자어교육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수준별 분류와 그에 따른 전문적인 학습 교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3) 漢字·漢字語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한자·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한자어를 설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영어[외국어] 표기가 중요하다. 또한 한 개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많은 예시와 설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할 때 정확한 한자 어휘를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와이대학교에서 필자 이전의 교수자의 교수-학습 방법은 논의할 상황²⁵⁾이 되지 못하므로 필자가 1년 동안 하와이대학교의 교재를 바탕으로 실제 경험했던 수업 사례를 들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미국대학의 한국어 전공에서 세부적으로 한자를 전공으로 설치한 대학은 아직 없으며, 한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들도 한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거나 판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입단계>

- 가. 오늘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읽는다. 제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자어를 생각하도록 한다.
- 나. 새로 나온 신출 한자를 눈으로 익힌다.
- 다. 다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한다.(본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한자어가 나와도 때론 유추할 수 있고, 모를 때에는 그냥 지나친다. 한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중간단계>

- 가. 새로 나온 신출 한자를 한자씩 학습한다. ppt를 사용하여 한 글자에 해당하는 부수를 제시하고 획순도 보여준다. 더불어 한자의 형성원리도 설명한다. 그 한자가 포함된 쉽고 빈도수가 높은 한자어들을 마인드맵(mind map)으로 제시하여, 그 한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의 뜻을 영어와 함께 병기한다.
- 나. ppt를 활용하여 한자를 획순에 따라 5번씩 쓰게 한다.(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
- 다. 본문에 나온 한자어를 큰 소리로 읽고 익힌다. 동음이의어인 한자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후 학습한 한자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다.(예 - 國家: nation, 國歌: national anthem 등)
- 라. 한자와 한자어를 익힌 후에 다시 본문을 읽는다. 처음에 몰랐던 한자어를 다시 읽게 함으로써 한자어를 친숙하게 익히도록 한다.
- 마. 과제로 부여한 본 단원에서 나온 한자와 관련된 한자어를 발표하도록 한다.
- 바. 연습문제를 학습한다.
- 사. 오늘의 故事成語를 ppt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혹 단원에서 나온 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사성어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그 문화에 비슷한 속담이나 격언이 있으면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 단계>

- 가. 오늘 학습한 한자를 나열한 후 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 나. 획순이 적은 한자는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시킨다.
- 다. 다음 시간에 배울 단원에서 나오는 한자와 관련된 빈도수가 높은 한자어를 3개씩 찾아서 다음시간에 발표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내용은 부수에 관한 부분이 많다. 부수를 알면 한자의 의미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익히는 한자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자어를 설명할 때는 한자어의 확장을 위해 한자어의 구조와 생성원리에 관한 내용도 자주 언급한 부분이다. 한자를 찾는 방법은 옥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한자를 제일 많이 찾는 방법은 한자의 음을 활용한 방법과 부수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던 부분은 고사성어의 학습이었다. 고사성어 부분은 이 교재에서 빠져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故事成語를 선별하여 한 단원에 1개씩 규칙적으로 故事成語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고사성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한자어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典故나 由來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²⁶⁾

4) 漢字·漢字語 教育의 평가 방법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학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다. 한자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주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퀴즈를 많이 활용하였다. 3단원이 끝날 때마다 수업하기 전에 15분간 간단한 퀴즈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학생들의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한자를 노트에 쓰게 하여 기본적인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물 역시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하였다. 또 다른 수행평가는 각 단원에 나온 신출한자를 기본으로 빈도수가 높은 한자어

26) 학기말(2013년 5월) 시험이 끝나고 강의평가의 내용을 보면 교재에 없는 고사성어 학습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를 찾아서 예문을 만들어 학생마다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한 발표수업이었다. 한자어는 문장 중에서 익힐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한자 어휘를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國’을 배웠으면 각 학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자 어휘·‘國家’, ‘國民’, ‘國政’ 등-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발표하게 하여 각자의 능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그는 國家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라고 문장을 사용하였으면 다른 학생은 ‘그 나라 國民은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같은 ‘國’자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國’자에 대한 학습자들의 기본 지식으로 인해 학습된 어휘는 각기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어휘 선별도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낱글자를 배우고 난 후 한자 조어력에 의한 한자 어휘 생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많은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서 동음이의어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 평가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학습자의 발표는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도 가능할 수 있었다. 한국어능력이 다소 부진한 학습자는 그 밖에 개별 구두시험과 그룹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룹시험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 습득을 위해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 평가율은 출석 10%, 수행평가 30%(노트10%, 퀴즈10%, 프리젠테이션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한자·한자 어휘를 읽고 의미를 쓰는 것을 중심으로 출제하였고,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耳目口鼻, 春夏秋冬, 東西南北 등) 정도만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필순, 부수, 동음이의어, 고사성어 등 다양하게 출제하여 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III. 結論

본고에서는 하와이대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K-culture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대학에서도 한국어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은 우리에게 낯선 분야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자교육을 위해서 한자 전공자들이 나서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그들은 독자적으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때 이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이 든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자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 전공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음에서 필자는 외국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외국인들의 바람직한 한자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① 한국어 교육용 수준별 한자선정과 한자 어휘의 범위 선정
- ②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교육 전문가들이 집필한 단계별 교재 편성
- ③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한자 한자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 ④ 외국의 한국어(문)학과나 한국학과가 있는 대학에 한자교육 적극 홍보
- ⑤ 외국대학에 한자·한자어 교육 강좌가 있는 학교와의 활발한 연계 교류

위의 방안들이 해결한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은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분야로 위상이 확립될 것이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국내외 외국인들을 위한 한자교육을 누가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학습하든,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서 한자교육은 한자 전공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 고예진·조재형,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고찰」, 『다문화 콘텐츠연구』 제1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 김경년, 「미국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2002.
- 김대회,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재고」, 『한자한문교육』 제2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 ,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발전 방향」, 『한문교육연구』 제3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 김지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자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전공 및 전공 예비 과정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1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 김지형·배규범, 『漢字로 배우는 한국어 I』, 유씨엘아이엔씨, 2005.
- 김현정,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한자어 선정과 교수학습 방안」,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제23호, 이중언어학회, 2003.
- 박영미·김영수·김광미, 『외국인을 위한 퍼즐과 실전으로 배우는 漢字成語』, 교학연구사, 2012.
- 배규범, 『외국인을 위한 한자: 요모조모 한국읽기』, 보고서, 2007.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소, 『Useful Chinese Characters for learners of Korean』, 다락원, 2007.
- 설혜경,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 연구」, 배재대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9.
- 손호민,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 송병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어휘 교육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3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漢字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1·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오수진,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유홍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 윤재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한자교육」, 『한문교육연구』 제3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재미있는 漢字』, 한국문화사, 2004.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 훈, 「외국인을 위한 한국한자 교육 연구」, 『국어문학』 제47집, 국어문학회, 2009.
- 최주열, 「한자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교육』 제5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4.
- Sohn, Ho-min, 《Topic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press, 2013.
- Chang Suk-jin, 《Korean》(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4), Amsterdam: John Benjamins B.V, 1996.
- 조준학·손연자·양혜순 공저, 《Korean reader for Chinese character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 Váldes. Guadalupe, Joshua A Fishman, Rebecca Chavez & William Pérez, 《Developing Minority Language Resources: The Case of Spanish in California》,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6.

UC버클리 한국학센터(<http://ieas.berkeley.edu/cks/>)

UCLA 한국학연구소(<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programs/course>).

컬럼비아대학교 한국어과정(www.columbia.edu/cu/ealac/korean)

하와이대학교 한국어학과(<http://www.catalog.hawaii.edu/courses/departments/kor.htm>)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as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 with focus on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program at University of Hawaii / Park Se Ji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eaching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to foreigners as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it is practiced outside Korea, identify problems in such practices and suggest solutions. For this purpose, the paper discusses practices of teaching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at US universities with the focus on those institute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where the author taught related courses as a visiting scholar for two semesters. Deman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opportunities to study Korean culture is growing abroad as Korea's international status keeps improving. Education in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words is an integral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as their knowledge is vital to understanding the Korean language and expanding one's Korean vocabular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aper first gives a general survey of US university programs that teach Chinese characters and Sino-Korean vocabulary. It, then, narrows the focus to the program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for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textbooks used, the objectives and designs of the courses offered and the pedagogical and evaluation methods used.

【Key words】 Chinese charact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eigners, University of Hawaii

투고일 : 5월 3일, 심사일 : 6월 8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Teaching professor of Kyungmin Univ. / psjjj@hanmail.net